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玄
金
姜

平
洪
根

孝
植
保

目 次

I 緒 說	3. 2 直說法과 疑問法語尾
II 平 叙 法	3. 3 回想法과 疑問法語尾
2. 1 序 言	3. 4 推測法과 疑問法語尾
2. 2 直說法과 平叙法語尾	IV 命令法·勸誘法
2. 3 回想法과 平叙法語尾	4. 1 序 言
3. 4 推測法과 平叙法語尾	4. 2 命令法語尾
III 疑 問 法	4. 3 勸誘法語尾
3. 1 序 言	V 結 論

I 緒 說

1.1. 濟州島는 絶海孤島이다. 絶海孤島인 濟州島에 稀貴하고도 珍重한 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고, 따라서 그 研究할 價値가 높은 地域으로 認定되어지고 있다. 事實 方言 中에서도 絶海孤島의 方言, 山間僻地의 方言에 古時代의 言語가 殘在해 있는 것이다 함은 言語地理學에서 證明해 주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交通手段의 發達, 義務教育에 따르는 표준어의 普及은 山間僻村 아니미치는 곳이 없어서, 어느 地域에서나 그 地方 特殊한 方言은 급격히 消滅해 가는 過程에 놓여 있는 實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허나 오늘날까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絶海孤島나 山間僻村에 古時代의 言語狀態가 간직되어 있음도 또한 否認할 수 있는 事實이라 하겠다.

1.2. 그런데 오늘날 濟州島 方言의 狀態는 그 音韻分野에 있어서는 後舌低母音인 /v/音이 第二音節에서는 다른 母音에 比하여 相當한 比率로 使用해지고 있어서¹⁾ 그 母音組織體系에서 볼 때 17, 8세기의 狀態를 維持하고 있다고 한다.²⁾ 한편 語彙分野에 있어서는 一例로 「나무」란 말을 들어서 볼 때에 이 말의 高麗時代의 語形이라 할 수 있는 「남」形이 아직도 빈번히

1) 玄平孝 "濟州島方言(·)音小考「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東國大, 1963, pp. 627~46

2)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1960, p. 279

쓰여지고 있고, 또 朝鮮朝時代의 語形「나모」도 흔히 使用되어진다.³⁾

이상과 같이 音韻分野에서의 17, 8세기 狀態, 語彙分野에서의 12, 3세기 내지는 17, 8세기 狀態등 實로 混態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濟州島 方言의 實狀인 것이다.

1.3. 다음 形態分野에서의, 特히 活用語尾에서의 方言의 構造的 特徵과 그 國語史的 位置는 어떠한 것인지, 李崇寧博士는 濟州島 方言의 格語尾가 新羅時代 言語의 格體系를 뒷받침 해 준다고 한 바 있다.⁴⁾ 新羅時代 言語를 傳해 주는 記錄인 소위 「鄕歌」는 아직도 그 解讀自体에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形便인데, 이의 解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도 濟州島 方言의 形態分野 곧 活用語尾 또 曲用語尾들에 對한 論究는 가장 緊急을 要하는 研究課題 중의 하나인 것이다.

1.4. 本稿는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이다. 여기서 「活用語尾」는 定動詞의 活用語尾를 中心으로 하여 論해 나가기로 한다. 定動詞의 活用語尾는 그 構成體의 形成 如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活用語尾 다음에 아무런 形態素도 後接됨이 없이 말을 終結시켜 버리게 되는 경우, 이 경우의 活用語尾를 語末語尾(final ending)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語幹과 語尾 사이에 어떤 形態素들이 덧붙여 들어가 複雜한 構成體를 形成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의 活用語尾(形態素)를 先語末語尾(prefinal ending)라 한다.⁵⁾

語末語尾는 그 다음에 아무런 形態素도 後接되는 일이 없으므로 閉鎖形態素(Closing morpheme)라 하게 되고, 先語末語尾는 그 다음에 다른 語尾 形態素(語末語尾 또는 先語末語尾)가 後接되어 오므로 開放形態素(nonclosing morpheme)라 하게 된다.⁶⁾ 그런데 開放形態素인 先語末語尾들은 그 形成이 매우 多樣하고, 따라서 여러 形態素로 分析되며 이들 여러 形態素의 構造體系 또한 複雜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 先語末語尾중에는 後行語尾(語末 또는 先語末語尾)와의 結合에 制約이 적고 語幹 또는 先行한 先語末語尾와도 自由로 分離될 수 있는 이런 先語末語尾들이 있는가 하면, 또 “-디네다”, “-디네다”들의 “-디네-”, “-디네-”는 各各 두 개의 形態素로 分析되는데 “-네-”, “-네-”는 語幹에 直接 連結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後行語尾와의 結合에 制約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先語末語尾들이 있다. 앞의 것을 「分離의 先語末語尾」라 한다면 뒷의 것을 「膠着的 先語末語尾」라 할 수 있다.⁷⁾

이상과 같이 先語末語尾는 매우 多樣하고도 複雑한 構成體를 이루는 것이므로 各其 形態類에 따라서 分類를 하고 章을 달리하며 論해 나가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主로 方言의 定動詞의 語末語尾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여 나가는 가운데서 先語末語尾에 대해서도 論及하고 形容詞의

3)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資料篇」, 精研社, 1962, p. 389

4) 李崇寧 Ibid., pp. 297~307

5) 이런 先語末語尾를 在來에 “도움줄기”(補助語幹)라 稱하여 왔다.

崔鉉培 「우리말본」, 정음사, 1959, pp. 339~379

6) E. A. Nida Morphology, Ann Arbor, 1946, p. 85

7) 高永根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三卷 一號」 서울大語學研究所, 1967, p. 53

語尾들에 대해서도 言及하기로 한다.

語末語尾는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 이들에 대하여 順序의 順序로 考察하되 構造의 方法으로 行한다. 그리하여 이 語尾들에 대한 構造의 考察을 通해서, 本稿에서는 方言 活用語尾의 構造의 特異性을 밝히는데 主目標을 두고 作業하기로 한다.

Ⅱ 平 叙 法

2.1. 序 言

2.1.1. 言語는 話者와 聽者 사이에 서로 그 意思를 傳達하고 理解하는데 있다고 하게 된다. 그 意思를 傳達함에 있어서는 自然히 거기에는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發話(文章)의 內容에 대하여 話者의 心的 態度가 叙述語의 語形變化上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發話의 內容에 대하여 話者의 心的 態度가 表現되어지는 것을 文法에서는 mood(叙法)라 한다.⁸⁾ 國語에서는 이러한 叙法이 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지는 勿論이고, 先語末語尾로써 表現되어지기도 한다. 叙法으로 表現되어지는 先語末語尾는 平叙法·疑問法·感嘆法 앞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에 native speaker(原語民)들의 發話を 놓고서 그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를 各其 形態素 別로 分析하며 考察해 나가기로 한다.

2.2. 直說法과 平叙法語尾

2.2.1. 直說平叙法語尾 “-나”와 “-는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들을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 (1) 이 애진 말 잘 준다.
- (2) 난 아무거나 잘 먹나.
- (3) 그 사람 예접에 잘 웃나.
- (4) 이 물은 잘 듣나.

이들 發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方言의 活用語尾로서 “-나” 語尾가 아주 빈번히 쓰인다. 그런데 方言에서의 “-나”의 用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用言의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單語에만 接尾되어서 發話を 終結짓는 平叙法으로서의 活用이고, 다른 하나는 用言의 語幹이 母音으로 끝난 單語이건 子音으로 끝난 單語이건 두루 接尾되되, 그 위에 上昇語調를 더하여 發話を 終結짓는 疑問法語尾로서의 活用이다. 이 疑問法語尾는 主로 同年輩의 詰

8)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1947, p. 313

은 이들 사이에서 쓰이는데, 이것은 아마 改新과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平叙法語尾만을 살펴되, 다음에 다시 몇몇 用言語尾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묻나(埋) 듣나(聞) 짓나(造) 죽나(死) 받나(受) 돈나(走) 춥나(寒) 덥나(暑)
 밝나(明) 덩나(溫) 어둡나(暗) etc.

들과 같은 語尾들이 發話에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 “-나”는 單一形態素인지, 또는 複合形態素인지가 疑問이다. 여기서 이 {-나}를 複合形態素로 分析하여 보려 한다. 그것은 本項에서 또 하나의 論題로 내세운 “-나다” 語尾와 對比시켜 볼 때 더욱 이 {-나}를 두 形態素로 分析하게 된다. 그럼 먼저 “-나다” 語尾의 例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5) 우리 성 날 서월 간다.
- (6) 가의 저녁의 온다.
- (7) 철순 학교에 멩진다.
- (8) 현 서으로 진다.

이들은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發話들이다. 이들 例에서 語幹과 語末語尾 “-나” 사이에는 “-나-”이 介在되어 있다. 이 “-나-”이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素가 될 것인가의 疑問이다. 文法範疇로 時制體系를 認定하는 見解에서는 이 “-나-”을 時制上에서 「現在」를 表示하는 形態素라 할 것이다.

“간다”, “온다”, “훈다”, “진다”들에서 各 語幹과 語末語尾 {-나} 사이에 介在해 있는 “-나-”을 時制上에서 現在形의 形態素라고 한다. 그러나 國語文法에서 「時制」라는 文法範疇를 認定해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 國語文法에서의 時制分類를 보면 네가지에서⁹⁾ 열두가지까지¹⁰⁾ 되어 있다. 이 時制의 分類가 이렇게 區區함은 國語文法에서 아직도 文法範疇로서의 時制分類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近者에 이르러 國語文法學界에서는 在來에 단순히 時制로만 다뤄 오던 形態素들에 대하여 「時制」와 「時相」(aspect) 兩面에서 보는 見解가 있고¹¹⁾ 또 「時相」으로만 보는 그런 見解들이 있다.¹²⁾ 筆者는 方言의 用言活用語尾에서 「時制」라는 文法範疇를 認定치 않는 反面, 다음에 論할 바와 같이 「動作相」(Aktionsart)이라는 文法範疇를 設定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本項에서 問題로 삼고 있는 “간다”, “온다”, “훈다”, “진다”들에서의 先語末語尾 “-나-”도 在來

9) 李熙昇 「새고등문법」—潮閣, 1957, p. 69

10) 崔鉉培 Ibid., p. 432

11)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pp. 202~9

李鍾徹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號), 서울大, 國語研究會, 1964

李承旭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1973, pp. 184~217

12) 南基心 “現代國語時制에 관한 問題” 「국어국문학55~57호」, 국어국문학회, 1972, pp. 213~238
 張奭鎮 “時相의 種類; 繼續·完了의 生成的 考察”, 「語學研究9~2」, 서울大 語學研究所, 1973, pp. 58~72

의 國語文法에서와 같이 이것을 時制 形態素「現在形」으로 보지 않고, 달리 어떤 다른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素로 보고자 한다.

方言의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文法範疇의 하나에「叙法」(mood)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인데, 方言에서 몇가지 叙法 중에 話者가 “主體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이 있다. 이 叙法을 筆者는 여기서「直說法」(Indicative)이라 하여 둔다. 이제 위에서 例로 든 發話들을 다시 列擧하며 吟味해 보기로 한다.

(5') 우리 성 날 서월 간다.

(6') 가의 저녁의 온다.

(7') 철순 학교에 땡진다.

(8') 췌 서으로 진다.

여기 (5')과 (6')은 未來의 確定的인 動作이고 (7')은 現在의 反復的인 行動이며 (8')은 眞理에 속하는 事實로서 이것도 또한 確定的인 動作이라 할 수 있겠다. 話者는 이들 動作 事實에 대해서 指定하여 直接的으로 聽者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直說法이다. 그러면 이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간다”, “온다”, “진다”, “땡다”들에서 語幹과 語末語尾 {—다}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ㄴ—”이다. 이 “—ㄴ—”이 話者로 하여금 主體의 어떤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게끔 하는 形態素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語末語尾 “—다”는 또한 話者로 하여금 어떤 確定的인 動作·性質·狀態에 대해서 肯定的인 斷定을 하여 말을 끝맺게 하는 平叙法 形態素이다.

위에서 論하여 온 바 “간다”, “온다”, “땡다”, “진다”들에서의 “—ㄴ—”을 直說法의 形態素로 規定하게 됨은 다음의 例에 비추어 보더라도 充分히 認定할 수 있는 것이라겠다.

(9) 철순 학교에 땡기느냐?

(10a) 예, 땡깁네다.

(10b) 오, 땡진다.

이 發話 (9)와 (10a), (10b)는 第3人稱 動作主의 動作에 대한 問答이다. 그런데 發話(9)에서 “땡기느냐”의 “—ㄴ—”를 直說法 形態素의 基本形이라고 한다.¹³⁾ 同一한 內容 事實의 動作을 놓고, 그 묻는 言述이 直說法으로 表現되었을 경우 그에 대하여 대답하는 言述 또한 直說法으로 表現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發話(10a)의 “땡깁네다”의 “—네—”는 事實 直說法의 形態素이다. (10b)의 “땡진다”의 “—ㄴ—”은 어떤 것인지, 이 “땡진다” 語形은 그 語幹이 “땡기—”이요 語末語尾는 {—다} 문이다. 이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ㄴ—”의 그 意義와 機能은 (10a)의 “—네—”와 同一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본다면 “—ㄴ—

13) 高永根「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대한 研究」(國語研究 15호), 서울大 國語研究會, 1965, p. 21

—이 直說法의 形態素임을 여기서 再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는 “잔다”, “온다”, “진다”, “훈다”들의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形態素 즉 先語末語尾 {—ㄴ—}을 直說法의 形態素라고 規定하는 바이다.

이제 돌아가서 {—나}語尾를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語幹과 {—다}語尾 사이에 {—ㄴ—}이 介在되는 말과 “—나”語尾의 말을 對比시켜 본다.

“—ㄴ다”語尾	“—나”語尾
본다 (見)	잡나 (執)
잔다 (寢)	먹나 (食)
춘다 (與)	돕나 (助)
행간다 (行)	돌나 (昇)
벗린다 (棄)	밟나 (踏)
드린다 (率)	몬나 (會)
마진다 (持)	못나 (持)

들과 같이 많은 例들을 볼 수 있는데 어느 例에서나 “—ㄴ다”語尾는 語幹이 母音으로 끝난 말에 連結되어 있고, “—나”語尾는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 連結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ㄴ다”의 語尾나 “—나”의 語尾나 實際 方言의 發話에서 同一한 意義, 機能을 지녀서 言述을 終結시킨다. 이와 같이 “—ㄴ다”와 “—나”가 同一한 意義, 機能을 지닌다 할 때 “—ㄴ다”의 “—ㄴ—”(直說法의 形態素)에 該當될 形態素는 “—나”에 있어서는 “—나”의 “—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ㄴ다”의 “—ㄴ—”을 直說法의 形態素라고 한다면 “—나”에 있어서의 “—ㄴ—”도 마찬가지로 直說法의 形態素라고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서 {—나}는 두 形態素의 複合으로 分析하게 되는 것이다. 卽 다시 말하여 語尾 “—나”는 直說法의 形態素 {—ㄴ—}과 語末語尾의 形態素 {—아}와의 結合이라고 보는 바다.

이리하여 우리는 方言 定動詞 語尾活用에서 直說法 形態素로 {—ㄴ—}을 얻게 되고 또 平叙法 語尾 形態素로 {—아—}를 얻게 된다.

다음은 形容詞의 語尾活用の 例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 (11) 여름엔 이디도 덩나.
- (12) 산엔 벚름 불영 출나.
- (13) 앉아서민 날 붉나.
- (14) 비 오는디 옷젓나.

이와 같은 發話들은 方言에서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들 例 “덩나”, “출나”, “붉나”, “젓나”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語尾가 連結되어 있는 그 語幹은 모두 子音으로 끝난 말들이

다. 이것은 定動詞의 語尾活用과 마찬가지로이다. 定動詞의 語尾活用に 있어서 그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만 “-나”語尾가 連結되었는데 이 形容詞의 語尾活用に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로 現象으로 그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만 “-나” 語尾가 連結되어 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形容詞 語尾에서의 “-나”도 이미 위에서 定動詞 語尾를 分析 規定한 바 그대로 直說法의 形態素 {-ㄴ-}과 平叙法 語尾 {-아}와의 結合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方言에서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15) 이 옷ㄴ슴은 야린다.

(16) 그걸로 찌르민 아픈다.

(17) 이 설은 길진다.

(18) 늣으민 머리 힌다.

이들 例에 있어서도 定動詞의 語尾活用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形容詞의 語幹에 “-ㄴ다” 語尾가 連結되어서 言述해지고 있다. 이러한 語尾活用, 即 形容詞의 語幹에 “-ㄴ다” 語尾가 連結되어지는 活用, 이것은 아마 이 方言의 特異한 點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 “-ㄴ다”의 {-ㄴ-}은 定動詞의 語尾에서와 마찬가지로 「直說法」의 形態素가 되고 {-다}는 「平叙法」의 形態素가 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과 같이 하여 形容詞의 語尾活用に 있어서도 定動詞의 語尾活用に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 있어서는 “-나” 語尾가 오고, 語幹이 母音으로 끝난 말에 있어서는 “-ㄴ다” 語尾가 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形容詞의 語尾도 定動詞의 語尾와 마찬가지로 그 “-나”는 直說法의 形態素 {-ㄴ-}과 平叙法의 形態素 {-아}로 分析되며, “-ㄴ다”는 亦是 마찬가지로 直說法의 形態素 {-ㄴ-}과 平叙法의 形態素 {-다}로 分析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方言의 發話에서 다음과 같은 言述도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19) 야의 얼굴은 겹다.

(20) 가의 손은 히다.

(21) 이 방은 붉다.

(22) 그 물은 크다.

이들 例에서 보면 形容詞의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에건 母音으로 끝난 말에건 한결같이 {-다} 語尾가 連結되어 있다. 이 形容詞의 語幹에 {-다} 語尾가 直接 連結되어 活用하는 語尾 構成體는 바로 國語 形容詞 語尾活用の 한가지 特徵인 것이다. 形容詞의 이 語尾構成體, 즉 語尾에 {-다} 語尾가 直接 連結되는 構成體는 單純한 平叙法의 構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形容詞의 語幹에 直結되어 있는 “-나”나 “-ㄴ다”는 話者가 主体의 動作·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直說法과 그 指定的인 動作·狀態를 다시 肯定的 斷定으로 發話を 終結짓는 平叙法과의 複合 語尾構成이고, 한편 形容詞의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는 “-다”는 單純히

現在的인 狀態나 性質을 言述하는데 不過한 平叙法만의 語尾構成이라고 본다.

그리고 定動詞의 語尾 “-나”, “-나다”나, 形容詞의 語尾 “-나” · “-나다” · “-다”나 마찬가지로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는 「하라체」(下待)에 屬하는 語尾가 된다.

2.2.2. 直說平叙法語尾 “-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23) 난 이디서 밥 먹네.
- (24) 가의가 먼저 오네.
- (25) 아진 집의서 잠네.
- (26) 년 밤 하영 먹엇네.

方言에서 “-네” 語尾의 發話가 흔하게 言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平交間 即 同年輩 사이에서는 그래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23), (24)에서는 “-네”가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고 (25), (26)에서는 語幹과 “-네-”와의 사이에 先語末語尾 “-암-”, “-엇-”이 介在되어 있다. 여기서 語幹과 “-네”와의 사이에 先語末語尾 “-암-”, “-엇-” 따위가 介在되는 發話의 例들을 들고 이런 語尾構成體가 方言에서 一般的인 것인가? 또는 우발적인 것에 不過한 것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 (27) 난 이디서 밥 먹엿네.
- (28) 가의가 먼저 오람네.
- (29) 칠순 질해서 놀암네.
- (30) 난 일 하영 하엿네.

이들 發話에서 (27)과 (30)은 話者가 自己自身(第一人稱者)의 動作에 對하여 聽者(第2人稱者)에게 言述한 것이요 (28), (29)는 第3人稱者이 動作에 對하여 聽者(第2人稱者)에게 言述한 것이다. 꼭 같은 內容 事實에 對한 發話는 아니지만 여기 發話 (27)과 (23)을 놓고 그 言述되는 比率를 생각하여 본다면 (27)쪽이 比率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23)의 “먹네”란 言述은 아무래도 方言에서 生硬한 感을 뉘칠 못할 것이다. 또 (28)과 (24)도 꼭 같은 內容 事實을 놓고 發話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言述되는 比率는 (28) 쪽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29), (30)도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發話들이다. 그런데 (27)-(30)의 發話에는 語幹과 語尾 “-네”와의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先語末語尾가 “-암/엿-” 뿐이다. 다음 (26)의 發話에 나타난 “-엇-” 따위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 (31) 난 이디서 밥 먹엇네.
- (32) 가의가 먼저 오랏네.
- (33) 칠순 질해서 놀았네.

(34) 난 일 하영 꺾었네.

이들은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發話들이다. 그리고 이 (31)——(33)의 發話와 (27)——(30)의 發話와는 同一한 語尾構成體의 言述들인데 다만 語幹과 語尾 “-네”와의 사이에 介在해 있는 形態가 다를 뿐이다. 즉 (27)——(30)에서는 “-암/엎-”이 나타나 있고, (31)——(34)에서는 “-앗/엇-”이 나타나 있다.

이상 (27)——(34)의 發話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엎-”과 “-앗/엇-”은 平行的 分布(parallel distribution)를 하여서 體系 整然하게 對立되어 있다.

이 “-암/엎-”과 “-앗/엇-”은 方言의 發話에서 偶發的으로 發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一般性 있는, 어떤 話者의 發話에서나 體系 整然하게 言述해지는 形態들이다. 그럼 이와 같이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하는 “-암/엎-”과 “-앗/엇-” 形態는 어떤 意義와 機能을 지니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本項에서의 直接的인 論題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러한 “-암/엎-”과 “-앗/엇-”이 體系 整然하게 平行的 分布를 하여서 나타나는 先語末語尾의 形態임을 指摘함에 그치면서 다음 節에 가서 論하기로 하고, 本項의 論題인 “-네”의 分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여기 다시 方言에서 “-네”로 終結되는 發話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35) 난 돈저 집이 가네.

(36) 너 밥 많이도 먹네.

(37) 그 사람은 방의서 좁자네.

(38) 비가 오고 바람이 부네.

위에서도 말及한 바와 같이 “-네” 語尾로 終結되는 發話가 方言에서 아주 흔하게 言述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同年輩들 사이의 對話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發話에서 (35)는 話者가 自己自身(第1人稱者)의 動作에 對하여 直接的으로 言述한 것이고, (36)은 話者가 相對者(第2人稱者)의 動作을 指定하여 直接 言述한 것이고, (37)과 (38)은 第3人稱者의 動作에 對해서 話者가 指定하여 直接 言述한 것 들이다.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가 主体의 動作을 指定하고서 直接的으로 말하는 言述이 바로 直說法이 되는 것인데,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네”의 “-ㄴ-”이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를 平叙法 語尾라 하게 되는데 이 “-에”는 起源的으로는 “-ㄴ-”의 “-ㄹ-”과 平叙法 語尾 “-이”와가 化合(amalgam)하여 된 것이라 본다. 方言의 音韻變化에서 “-ㄹ-”은 “-이”와 結合되면 “-애”가 아니고 全部 “-에”로 變하여졌다. “-네”도 “-ㄴ-”과 “-이”가 結合하는데서 變하여 된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네”는 直說法의 形態素와 平叙法 語尾와가 同時에 發生하고 있는, 말하자면 同時的 發生의 複合形態素라고 하게 된다.¹⁴⁾

14) E. A. Nida Ibid., p. 76

다음 形容詞에서의 “-네” 語尾의 活用을 보기로 한다.

- (39) 그 새 크네.
- (40) 오늘은 바람이 세네.
- (41) 날이 오늘은 덥네.
- (42) 오늘 춤 일기 좋네.

方言에서 이러한 發話는 同年輩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9)와 (40)에서는 “-네”가 母音으로 끝난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고, (41)과 (42)에서는 “-네”가 子音으로 끝난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다. 어느 語尾에 있어서나 話者가 主体의 狀態에 대하여 指定하고서 直接的으로 말하는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이 “-네”가 直說法의 形態素 {-ㄴ-}과 平叙法語尾 {-에}와가 化合하여 複合形態素가 形成된 것임은 定動詞의 語尾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定動詞 語尾 “-네”나, 形容詞 語尾 “-네”나 다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는 「 \bar{r} 어체」(平待)에 屬하는 語尾가 된다.

2.2.3. 直說平叙法語尾 “-ㄴ네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 (43) 철순 공부 잘 함네다.
- (44) 오늘 비 옵네다.
- (45) 이 애긴 밥 잘 먹음네다.
- (46) 이 물은 잘 들음네다.

이들 發話는 濟州 言語社會에서 年少者가 年長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尊待 意向을 가질 때에 그 相對者에게 言述하여진다. (43)과 (44)는 語幹에 “-ㄴ네다”가 直接 連結되어 있고, (45)와 (46)에서는 그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이어서 거기에 媒介母音을 介在시키고서 “-ㄴ네다”가 連結되어 있다. 그런데 年少者가 年長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尊待 意向을 가질 때에는 國語社會의 慣習에 따라 尊待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위의 發話 “함네다, 옵네다, 먹음네다, 들음네다”들에서의 語幹에 直接 또는 媒介母音을 介在하여 連結되어 있는 “-ㄴ-”이 바로 方言에서의 尊待表示의 形態素인 것이다. 이 “-ㄴ-”은 元來 客體尊待 形態素이었던 形態素 “-습-”이 轉變해서 된 것인데 國語文法史上에서는 17세기 이후에 相對尊待 形態素로 轉用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⁵⁾ 이 “-ㄴ-”이 오늘날 方言에서도 對者尊待(相對尊待)形態素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네다”의 “-네-”는 元來 “-ㄴ이다”의 “-ㄴ이-”가 化合(amalgam)해서 된 것임은 2.2.2에서 밝힌 바이다. 그런

15) 許雄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1963, pp. 62~76

데 2.2.2에서 밝힌 “-네-”의 {-이-}는 平叙法語尾로서의 {-이-}이었고 여기 “-느이-”의 {-이-}는 元來 相對尊待의 形態素이었던 것이다.¹⁶⁾ 그리고 여기의 {-느-}는 元來부터 直說法의 形態素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直說法의 {-느-}에 相對尊待의 {-이-}가 結合되어서 各各 그 機能을 달리하여 쓰여오다가 {-이-}가 相對尊待의 機能을 상실하여 버리고 直說法의 {-느-}에 化合되어서 그 語形도 “-네-”로 變해지면서 이제는 “-네-” 全體로써 單純히 直說法의 形態素로 機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이-}가 相對尊待의 機能을 상실하고 {-느-}와 化合되어 單純히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素로 固定되어 버리게 되자 相對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는 달리 求해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國語尊待法史上 {-日-}이 相對尊待를 表示하는 形態素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라겠다. 위와 같이 하여 오늘날 方言에서의 {-네-}는 直說法의 形態素가 된다.

다음 形容詞의 語尾를 보기로 한다.

(47) 여름엔 이디도 더웁네다.

(48) 그 남은 큼네다.

(49) 이 방은 붉음네다.

(50) 하늘은 높음네다.

이들 發話에서 (47)과 (48)에서는 語幹에 直接 “-日네다”가 連結되어 있고 (49)와 (50)에서는 그 語幹이 子音으로 끝난 말이어서 거기에 媒介母音을 介在시키고 “-日네다”가 連結되어 있는 점은 定動詞의 語尾에서와 같다. 그리하여 여기서의 {-네-}도 定動詞의 語尾에서와 마찬가지로 直說法을 表示하는 形態素가 된다.

그리고 “-日네다”는 方言의 尊卑法 體系에서 「훈서체」에 屬한다.

2.2.4 直說法平叙語尾 “-느니”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들을 들을 수 있다.

(51) 야의 말 잘 낫느니.

(52) 이 강아진 아무거나 잘 먹느니.

(53) 철순 일 잘 하느니

(54) 가의도 혼더 가느니.

이들 發話에서 “낫느니, 먹느니, 하느니, 가느니”들은 모두 그 語尾가 “-느니”로 끝나 있다. 그런데 (51)——(54)에서는 그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가 主体의 動作을 指定하여 直接 言述하고 있다. (51)에서는 主体가 말을 잘 하는 動作을 指定하여 直接 말하고 있고, (52)에서는

16) 許 雄 Ibid., pp. 70~76

강아지가 아무것이나 잘 먹는 動作을 指定하여 直接 言述하고 있고, (53)에서는 철수의 일 잘 하는 動作을 指定하여 言述하고 있다. 그리고 (54)에서는 그 아이의 같이 잘 動作을 指示 決定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와 같이 그 動作性を 指定하여 言述하게끔 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느니”의 “-느-”이다. 이 主体의 動作에 대하여 指示 確定하고서 直接的으로 말하는 叙法을 直說法이라 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이다. 이와 같이 “-느니”의 {-느-}는 直說法的 形態素가 되는데 語末語尾의 {-니}는 平叙法語尾라 하게 된다. 外形上으로 같아 보이는 “-니”가 疑問法語尾에서도 쓰이지만 이 平叙法語尾의 “-니”와 疑問法語尾의 “-니”와는 그 語尾構成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본다. 즉 疑問法語尾는 “먹니”, “가니”, “보니”와 같이 語尾 “-니”가 直接 語幹에 連結되어지지만 平叙法語尾로서의 “-니”는 소위 直說法 形態素 “-느-”에 連結되어진다. 따라서 兩者는 그 意義, 機能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 보게 된다. 그리고 疑問法語尾로서의 “-니”를 筆者는 直說法的 形態素 {-느-}과 語末語尾 “-이”로 分析하는 바다. 이 語末語尾의 “-이”를 發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에 대하여 疑問을 表示하는 形態素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疑問法語尾 “-니”는 {-느-}(直說法的 形態素)과 {-이}(疑問을 表示하는 語末語尾)로 分析이 되는 것이지만 平叙法的 “-니”는 더 이상 分析을 要하지 않는 單一形態素이다. 그리고 이 平叙法的 “-니”는 發話者가 動作主의 動作에 대하여 肯定的 認定을 表示하고서 發話を 終結짓게 하는 語末語尾이다. 또 疑問法語尾 “-니”는 改新 派의 물결을 타고 近者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느니”의 語尾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 「하라체」(下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2.2.5 直說平叙法語尾 “-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55) 난 밥 먹었시네.
- (56) 철순 부지런이 공부 하였시네.
- (57) 그 사람 밭 하영 갈아시네.
- (58) 간밤의 비 하영 오라시네.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語尾 “-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네”는 定動詞의 語尾에 直接 連結된 것이 아니라 先語末語尾 “-았시/었시-”, “-아시/어시-”에 連結되어 있다. 이들 “-았시/었시-”, “-아시/어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本項과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것이므로 다음에 가서 規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語尾 “-네”에 대해서만 밝히려 한다. 그런데 (55)——(58)에서는 그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가 主体의 動作 指示 確定하여 發話を 終結짓고 있다. 즉 (55)의 “난 밥 먹었시네”는 話者 自身(動作主)이 밥을 먹고 있는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하여 確認시키는 發話이고, (56)의 “철순 부지런이 공부 하엿시네”도 철순(動作主)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하여 주며 確認시키는 發話이고 (57)의 “그 사람 밧 하영 갈아시네”도 그 사람이 밧을 많이 간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 確認시키는 發話이고 (58)의 “간밤의 비 하영 오라시네”도 비가 많이 내린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 確認시키는 發話이다. 이와 같이 그 主体의 動作을 指示 確定하여 直接 말하는 機能을 지닌 語尾가 바로 “-네”이다. 그런데 이 “-네”는 主体의 動作을 指示 確定하여 말하는 機能의 形態素와 發話를 終結시키는 形態素와가 化合(amalgam)된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여기서 暫定的으로 이 “-네”를 “-니”(直說法의 形態素)와 “-에”(平叙法語尾)로 分析하여 둔다.

다음 形容詞에서의 “-네”語尾를 보기로 한다.

- (59) 그건 너의 높으네.
- (60) 그 색은 너의 히네.
- (61) 자의는 착하네.
- (62) 이 방은 어두우네.

이들 發話에 있어서는 語尾 “-네”의 機能은 定動詞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59)의 “높으네”는 높다는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 確定하여 말하는 發話이고, (60)의 “히네”도 희다는 事實을 指示 確認시키는 發話이다. (61)의 “착하네”도 (62)의 “어두우네”도 마찬가지로 착하다는 事實, 어둡다는 事實을 相對者에게 指示 確認시켜 말하는 發話이다. 이와 같이 事實을 指示 確認시켜 말하는 機能을 지닌 語尾가 바로 “-네”임은 定動詞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네”語尾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라체」에 屬하는 語尾이다.

이상에서 論하여 온 바 方言의 直說法의 變異形態들을 한데 묶어 보면,

/-ㄴ-ㄴ-ㄴ-ㄴ-ㄴ-ㄴ-ㄴ-네- /

와 같다. 이들은 形態論적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基本形態를 {-ㄴ-}로 삼는다. 그리고 이상에서 論하여 온 直說法과 平叙法의 語尾들을 여기 一括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平 叙 法 :

叙 法	尊卑法 體		하 여 體		홍 서 體	
	動	形	動	形	動	形
	-나	-나	-네	-네	-디네다	-디네다
直 說 法	-ㄴ다	-ㄴ다				
	-ㄴ니	-ㄴ니				
	-네	-네				

2.3 回想法과 平叙法語尾

2.3.1 回想平叙法語尾 “-더라”

回想法(Retrospective)이란 話者が 自己自身이나 相對者の 過去 經驗한 動作 性質, 狀態를 回想하여 또는 回想시켜 言述하는 叙法을 말한다. 直說法이 話者 自身이나 또는 相對者の 經驗 有無에 拘碍될이 없이 主体的 動作·性質·狀態를 指定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임에 反하여 回想法은 話者が 自己自身의나 相對者の 過去 經驗을 回想하여 또는 回想시켜 말하는 叙法인 것이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言述하여진다.

(63) 는 그 때 말 잘 끝더라.

(64) 가이도 밥 하영 먹더라.

(65) 나 간 보난 일 다 했더라.

(66) 가이는 어디 나갔더라.

이들 發話에서 “-더라” 語尾가 (63)과 (64)에서는 語幹에 直接 連結되어 있고, (65)와 (66)에서는 先語末語尾 “-았/었-”에 連結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發話나 다 話者の 과거의 經驗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다. (63)은 話자가 相對方이 과거 어느 때에 있어서 말을 잘 하는 것을 보았더랬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고, (64)는 話자가 과거 어느 때에 第3人稱者인 그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말해 주고 있고 (65)는 第3人稱者가 일을 다한 것을 話者는 가서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있고, (66)은 話자가 第3人稱者인 그 아이를 찾아가 보니 없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과거에 經驗한 것을 回想하여 言述한 것을 表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語幹과 語末語尾사이에 介在해 있는 “-더-”이다.

다음 形容詞의 發話의 例를 보기로 한다.

(67) 지난 여름은 덥더라.

(68) 그 방은 너무 어둡더라.

(69) 가의 얼굴은 곱더라.

(70) 저술에 그 집은 춥더라.

이들 發話에서 “-더-”는 모두 形容詞의 語幹에 直結되어 있다.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の 지난 經驗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임은 定動詞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이 “-더라” 語尾가 方言의 尊卑法体系에서는 「하락체」(下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2.3.2. 回想平叙法語尾 “-데”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71) 그 사람 일 잘 하데.
- (72) 그 사람 일 잘 하였데.
- (73) 그 사람은 일찍 나가데.
- (74) 그 사람은 벌써 나가데.

이들 “-데”語尾의 發話가 方言에서 그렇게 흔하게 言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同年輩들 사이에서는 자주 發話해진다. 아마 이 “-데”語尾는 改新파의 물결을 타고 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현대 위의 發話들에서 “-데”는 語幹에 直結되어 있기도 하고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語幹에 直結되어 있는 “-데”이건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는 “-데”이건 마찬가지로의 意義, 機能을 지닌 形態素이다.

(71)의 “하데”는 話者가 과거에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일 잘 하는 것을 본 바가 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있고, (72)의 “하였데”도 話者가 과거에 第3人稱者인 그 사람이 일 잘 한 것(일 잘 한 그 行動의 完了)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있다. (73)의 “나가데”도 話者가 그 사람이 일찌기 어데 밖에 나가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있는 것이고, (74)의 “나갔는데”도 話者가 일찌기 찾아가 보았더니 그 사람은 벌써 나가버렸었는데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語幹에 直結되어 있는 “-데”이건 先語末語尾에 連結되어 있는 “-데”이건 모두 回想하여 言述하는 機能을 表示하고 있음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하여 “-데”는 直說法에서의 “-네”와 마찬가지로 元來 “-ㄷ-”와 “-이”와의 化合이라 볼 수 있다. 이 “-ㄷ-”가 “-이”와 結合되는데서 “-네”가 아니고 “-데”로 變해진 것이다.

이것이 同時的 發生의 形態素이다 함은 위에서 말한 바이다. 여기서 回想法의 形態素는 “-ㄷ-”이고 “-에”는 平叙法 語尾라 하게 된다.

2.3.3. 回想平叙法語尾 “-디데다”

方言에서는 言衆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言述해진다.

- (75) 철순 학교에 갑데다.
- (76) 가이 일찍 돌아옴데다.
- (77) 아진 밥 잘 먹음데다.
- (78) 그 학생 글 잘 익음데다.

이들 發話는 모두 話者가 과거에 經驗한 第3人稱者의 行動에 대하여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發話는 모두 年少者가 年長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話者가 相對者에게 對하여 尊待意向을 가질 때에 그 相對者에게 言述하여지는 것임은 直說法의 “-디데다”의 경우와 同一 하다. 따라서 “-디데다”에서의 {-디-}은 尊待表示의 形態素이고, “-다”는 平叙法의 語尾이다. 그 나머지인 {-데}가 곧 回想法의 形態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디데다”에 있어서 {-데-}가 直說法의 形態素임과 雙對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3.4. 回想平叙法語尾 “-아라/어라”

方言에서는 言衆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 (79) 철순 일찍 가라.
- (80) 가의도 그거 보아라.
- (81) 그 사람 일 잘 하여라.
- (82) 그 사람도 하영 먹어라.

이들 發話에 있어서 “가라, 보아라, 하여라, 먹어라”들은 모두 그 語尾가 “-아라/어라”로 되어 있다. 이 “-아라/어라”가 어떤 意義, 機能을 지닌 語尾인가가 問題이다. 오늘날 표준어에서는 “보아라, 하여라, 먹어라”들을 命令法語尾라고 한다. 허나 方言의 語尾構成에 있어서는 “아라/어라”形은 命令法을 表示해 주는 語尾가 아니다. 이들 語尾가 言述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79)의 “철순 일찍 가라”는 표준어로 對譯을 하여 놓으면 “철수는 일찍 가더라”로 밖에 더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80)의 “가의도 그거 보아라.”도 “그 아이도 그것을 보더라”로 밖에 더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81)의 “그 사람 일 잘 하여라”도 “그 사람은 일을 잘 하더라”로 밖에 더 옮길 수 없는 것이다. (82)의 “그 사람도 하영 먹어라”도 “그 사람도 많이 먹더라”로 밖에 더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方言에서의 “-아라/어라”는 표준어의 “-더라”에 해당되는 語尾이다. 事實 方言에서의 이 語尾의 言述은 언제나 話者가 主体의 動作에 대한 과거의 經驗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경우에 쓰여진다.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 方言에서의 “-아라/어라”의 “-아/어-”를 回想法의 形態素라고 하여 둔다.

2.3.5. 回想平叙法語尾 “-안게/언게”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흔히 들을 수 있다.

- (83) 그 사람 밥 하영 먹언게.
- (84) 그 학생 글 잘 익언게.
- (85) 가의 잘 놀안게.
- (86) 가의도 이거 보안게.

이들 發話에서는 그 語尾가 “-안게/언게”로 끝나 있다. 여기서 “-게”는 語末語尾이고 先

語末語尾인 “-안/언-”이 問題이다. 이들 發話에서 “-안/언-”의 用法을 吟味해 보기로 한다. (83)의 “먹언게”는 話者가 그 사람(第3人稱者)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을 과거에 본 經驗이 있어서 그것을 回想하여 相對者에게 言述하고, (84)의 “익언게”도 話者가 그 학생(第3人稱者)이 글을 잘 읽는 것을 과거에 본 經驗이 있어서 그것을 回想하여서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85)의 “놀언게”도 話者가 그 아이(第3人稱者)의 잘 노는 行動을 본 經驗이 있어서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86)의 “보언게”도 亦是 그 아이가 過去에 어떤 물건을 보는 것을 話者가 본 經驗이 있어서 그것을 回想하여 言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언-}으로 話者 自身の 過去 經驗을 回想하여 言述하는 機能을 表示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안/언-}이 回想法의 形態素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前項에서 論한 “-아라/어라”가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ᄃ라體」에 屬하는 語尾이고, 이 “-안/언-”은 「ᄃ여體」에 屬하는 語尾이다.

이상에서 方言의 回想法의 形態들에 대하여 論해 왔다. 그들 變異形態들을 여기에 한테 묶어 보면,

/-더-ᄃ-ᄃ-ᄃ-ᄃ-ᄃ-ᄃ-ᄃ(-아-/-어-)-ᄃ(-안-/-언-)/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의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 그 基本形態를 {-더-}로 삼는다. 그리고 이상에서 論해온 回想法과 平叙法語尾들을 여기 一括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平 叙 法 :

叙 法	尊卑法 品詞		ᄃ 體		ᄃ 體		ᄃ 體	
	動	形	動	形	動	形	動	形
回 想 法	-더라	-더라	-데	-데	-ᄃᄃᄃ	-ᄃᄃᄃ	-ᄃᄃᄃ	-ᄃᄃᄃ
	-아라/어라	-아라/어라	-안게/언게	-안게/언게				

2.4 推測法과 平叙法語尾

2.4.1 推測平叙法語尾 “-키어”

推測法(Presumptive)이란 話者가 “主體의 動作·性質·狀態를 推測하여 直接 말하는 叙法”을 말한다. 直說法은 主體의 動作·性質·狀態를 「指定(指示 確定)하여」 直接的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 推測法은 主體의 動作·性質·狀態를 「推測하여」 直接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推測法에서는 主體의 動作·性質·狀態를 單純히 推測하여서만 말하는 그런 것에 限하지 않고 主體의 動作이 「可能」을 意味하는 것이랄지 또는 主體의 「意圖」를 나타내는 것들도 이 「推測法」에서 다루기로 한다. 方言의 言衆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아주 빈번히 주고 받

는다.

- (87) 오늘밤 비 오키여,
- (88) 가의 공부 잘 하키여,
- (89) 올봄의 쌀값이 오르키여,
- (90) 올흰 곡식 잘 되키여,

이러한 發話는 方言의 原語民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言述해진다. 그런데 이 “오키여, 하키여, 오르키여, 되키여”들에 있어서 “-키여”가 語幹에 直結되어 있다. 이 “-키여”가 어떤 意義, 機能을 가진 것인지, 다음에 “-키여”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方言에서 體言이 叙述語로 쓰일 때 “맞이여, 집이여,”와 같이 言述되는데 이 “맞이여”의 “-이-”를 叙述格語尾라 한다. 그리고 “-여”는 肯定的 斷定을 表示하는 平叙法語尾이다. 이 叙述格語尾의 形態에 비추어 볼 때 위의 發話들에 나타난 “오키여, 하키여, 오르키여, 되키여”들의 “-키여”도 “-키+이여”로 分析이 可能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分析이 되면 {-키-}만이 하나의 獨立된 形態素라고 하게 된다. 그럼 {-키-}이 어떤 意義, 機能을 가진 것인가를 음마해 보기로 한다. (87)의 “오늘밤 비 오키여”란 發話는 話者가 日氣·氣象을 보건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것 같이 推測이 되어서 비가 오겠다고 言述을 한 것이다. (88)의 “하키여”, (89)의 “오르키여”, (90)의 “되키여”들 모두 話者가 推測을 하여 言述한 것들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키-}를 話者의 推測을 表示하는 形態素라 하게 된다.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아주 빈번히 들을 수 있다.

- (91) 난 집의 가키여.
- (92) 난 집의 강 누어 자키여.
- (93) 그건 나도 하키여,
- (94) 그 일은 나도 하여지키여.

이들 發話에서 (91)과 (92)는 話者 自己自身の 意圖를 言述한 것이고, (93)과 (94)의 “-키여”는 그 語尾의 形態가 (91), (92)와 同一하지만 그 意味는 差異가 있다 할 것이다. 즉 (93) (94)의 “-키여”는 可能을 意味하는 것들이다. (93)의 “그건 나도 하키여”는 “그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意味로서, 話者 自身の 可能을 言述한 것이다. (94)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하여 語尾“-키여”는 推測法의 形態素{-키-}와 平叙法語尾 {-이)여}로 分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키여”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라體」(下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2.4.2 推測平叙法語尾 “-크리”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빈번히 들을 수 있다.

- (95) 오늘밤 비 오크리.

(96) 오늘밤 바람 불크라.

(97) 이젠 쓸값 오르크라.

(98) 올윈 농사 잘 되크라.

이들 發話에서는 그 語尾가 “-크라”로 끝나 있다. 이 “-크라” 語尾는 어떤 意義, 機能을 가진 語尾인지, (95)의 “오늘밤 비 오크라”는 오늘의 日氣·氣象으로 보아서 비가 올 것 같이 話者에게 推測이 되어 話者는 “비가 오겠어”(비가 올 것 같다)라고 言述을 한 것이다. (96)의 “바람 불크라”도 話者가 오늘의 日氣·氣象으로 볼 때에 오늘 밤에는 바람이 불 것 같이 推測이 되어서 “바람이 불겠어”라고 言述을 한 것이다. (97), (98)도 마찬가지로 推測을 하여서 言述을 한 것들이다. 그럼 話者의 推測을 表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인지, 그것은 2.4.1에서 規명한 바와 같이 {-크-}이다. 그리고 이 “-크라”의 “-으-”는 媒介母音이요 “-라”는 平叙法 語尾이다. 方言에서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흔히 들을 수 있다.

(99) 난 학교에 가크라.

(100) 난 집의 강 공부 하크라.

이들 發話는 (91), (92)와 마찬가지로 話者 自身의 意圖를 言述한 것이다. 이 두 發話에서도 話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素는 “-크라”의 {-크-}이다. 그리고 이 “-크라”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어체」(平待)에 屬한다고 보아 둔다.

2.4.3 推測平叙法語尾 “-쿠다”

方言에서 原語民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言述하여진다.

(101) 난 집의 가쿠다.

(102) 난 널 오쿠다.

(103) 오늘밤에 비 오쿠다.

(104) 그 일은 나도 하쿠다.

이들 發話에서 (101)과 (102)의 “가쿠다, 오쿠다”는 話者 自身의 意圖를 나타내고, (103)의 “비 오쿠다”는 話者의 推測이요, (104)의 “하쿠다”는 話者 自身이 그 일을 능히 해 나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쿠다” 語尾로써도 話者의 單純한 推測, 話者 自身의 意圖, 話者 自身이 그 일을 능히 해 나갈 수 있음, 즉 可能을 表示하는 세 가지 意味를 지닌다 할 것이다. 허나 이들 중 意圖나 可能에도 推測의 意味가 多少 있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推測」, 「意圖」, 「可能」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 「推測法」이라 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쿠”의 {-크-}만이 推測, 意圖, 可能的 意味를 지닌 形態素라 보게 되는데, 그 나머지만 “-우다”는 어떤 形態素인지, (101), (104)의 發話의 場面을 볼 때 어느 發話에서나 話者는 年少者 아니면 下位者 또는 相對者를 尊待하려고 하는 意向을 話者가 가진 경우에 言述해진 것들

이다. 이런 年少者가 年長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尊待意向을 가진 話者가 그 相對者에게 發話를 할 때에는 國語社會의 慣習에 따라 「尊待法」을 쓰게 된다. 여기 “-우다”의 {-우-}는 바로 이 尊待表示의 形態素인 것이다. 方言에서는 相對者를 尊待하는 경우에 先語末語尾{-리-}으로써 表示하기도 하고 이 “-우다”의 {-우-}로써 表示하기도 한다.¹⁷⁾

2.4.4 推測平叙法語尾 “-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105) 칼 문지당 손베려.
- (106) 물 작난하당 옷 젖이려.
- (107) 너의 들당 부더지려.
- (108) 낭에 올랏당 떨어지려.

이들은 모두 어른이 애들에게 警戒하여 말하는 發話들이다. (105)의 “손베려”는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지나 않을까 걱정되어서 警戒를 하여 말해 주는 것이고, (106)의 “옷젖이려”도 애들이 물에서 작난을 하며 놀다가 옷이 젖게 되는 일이나 있지 않을까 하여서 警戒를 하여 말해 주는 것이다. (107), (10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이들 發話에서 警戒를 表示하는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語尾 “-려”가 되겠는데 이 “-려”는 또한 “-리-”와 “-어”로 分析된다. 이것은 2.4.5에서의 語尾와 비추어 볼 때 더욱 이와 같이 두 形態素로 分析하게 된다. 여기서 이 「警戒」를 意味하는 形態도 推測法에서 다루기로 하며 {-리-}를 推測法の 또 하나의 形態로 規定하고 “-려”의 {-어}는 平叙法語尾라고 하여 둔다.

2.4.5 推測平叙法語尾 “-리우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 (109) 멧심 흡서, 느려지리우다.
- (110) 잘못하당 손 상하리우다.

이들 發話는 年少者가 年長者, 즉 나이가 아주 많은 老人에게 대하여 言述해지는 것이다. (109)의 “멧심 흡서, 느려지리우다”는 나이가 아주 많은 이가 걸음을 걸을 적에 쓸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되어서 미리 警戒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110)의 “잘 못하당 손 상하리우다”도 나이 많은 老人이 날이 있는 연장으로 무엇을 할 적에 혹 손을 베는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미리 警戒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들 發話에서 그 警戒의 意味를 나타내는 形態素는 “-리우다”의 {-리-}이다. 그리고 “-우다”는 2.4.3에서 規명한 바와 같이 尊待表示의 形態素이다.

17) 玄平孝 “濟州島方言活用語尾와 文獻語의 比較研究”(文敎部報告論文), 1973, pp. 9~15

이상에서 方言의 推測法의 形態들에 대하여 論해 왔다. 그들 變異形態들을 여기 한테 묶어 보면

/-ㄱ-ㄴ-리-ㄴ-ㄴ-/

들과 같다. 이들은 形態論的으로 制約된 變異形態들이다. 여기 基本形態를 {-ㄱ-}로 삼는다. 이 {-ㄱ-}가 「하라체」, 「하여체」, 「홍서체」에 두루 나타나서 그 分布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것으로 基本形態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 論하여 온 바 推測法과 平叙法들을 여기 一括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平 叙 法 :

尊卑法 品 詞 叙 法	하 라 体		하 여 体		홍 서 体	
	動	形	動	形	動	形
推 測 法	-키여	-키여	-크라	-크라	-쿠다	-쿠다
	-려	-려			-리우다	-리우다

Ⅱ 疑 問 法

3.1 序 言

疑問法이란 話者가 相對者에게 어떤 事實에 대하여 質問을 하거나 疑問을 表示하는 心的 態度를 言述하는 叙法의 하나이다. 大概의 言語에 있어서 疑問法은 疑問法의 語尾나, 疑問辭에 依하거나, 抑揚 또는 語順에 依하거나 하여서 表現하여진다. 方言에서도 대개 이런 方法으로 疑問法이 表現되어진다. 여기서 先語末語尾로써 表示되는 叙法, 즉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과 語末語尾로서의 疑問法과를 함께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3.2 直說法과 疑問法語尾

3.2.1 直說疑問法語尾 “-느나”

方言에서는 原語民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發話가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111) 그 아기 밥 먹느나?

(112) 그 아기 말 곧느나?

(113) 철수 학교에 멩기느나?

(114) 그 학생 공부 하느나?

이들 發話에서 (111), (112)는 主体의 能力을 指示하여 相對者에게 묻는 것이고 (113), (114)는 主体의 行動을 指示하여 相對者에 묻는 것이다.

그럼 主体의 行動·能力을 指示하여 相對者에게 말하는 그 意義를 지닌 形態素는 어느 것일까? 그것은 2.2.4에서도 規명한 바와 같이 “먹느냐, 곧느냐, 땡기느냐”에서의 先語末語尾 {-느-}이다. 그리고 語末語尾인 {-냐}는 疑問法語尾이다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2.2 直說疑問法語尾 “-느니”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を 흔히 들을 수 있다.

(115) 느네 성 언제 서울 가느니?

(116) 이젠 누게 하느니?

(117) 가의 어디 땡기느니?

이들 發話에서 (115)의 “느네 성 언제 서울 가느니?”는 표준어로 옮기면 “너의 형 언제 서울에 가느냐?”이다. 형이 서울에 간다는 것은 指定되어 있는 事實인데 언제 갈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여기서 이 指定된 事實을 指示하여 말하는 그 意義를 表示하는 形態素가 “-느니”의 {-느-}이다. 그리고 {-니}는 반드시 앞에 疑問辭를 配列시키는 疑問法語尾이다. (116)의 “이젠 누게 하느니?”도 누가 하는 것만은 指定的인 事實인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 指定的인 事實을 指示하여 말하는 그 意義를 表示하는 形態素가 “-느니”의 “-느-”이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고} 添辭가 接尾되는 疑問法을 說明疑問이라 하는데¹⁸⁾ 이 方言에서의 {-니}가 接尾되는 疑問法도 앞에 疑問辭를 配列시키므로 說明疑問이라 할 것이 아닐까 한다.

3.2.3 直說疑問法語尾 “-냐”

方言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118) 너 공부 잘 하냐?

(119) 철수도 우리 집의 오냐?

(120) 이것도 사름 먹냐?

이들 發話에서는 “-냐”가 語幹에 連結되어 있다. 이 “-냐”에 對해서는 앞의 2.2.1에서도 言及한 바이지만 改新과 의 物 體를 타고 方言에 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것이 直說法의 形態素 {-느-}과 疑問法語尾의 {-아}로 分析됨은 2.2.1에서 規명한 바와 같다.

위에서 말해 온 3.2.1에서의 “-느냐”, 3.2.2에서의 “-느니”, 그리고 本項에서의 “-냐”들

18)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p. 169

安秉禧 “韓國語發達史中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37, p. 219

은 모두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러체」(下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3.2.4 直說疑問法語尾 “-는가”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121) 야의 공부 잘 하는가?

(122) 나도 같이 가는가?

(123) 그 사람 술 먹는가?

方言에서 이런 發話가 言衆들 間에서 흔하게 發話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는가” 語尾는 近者에 표준어계의 語尾가 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이 {-는-}도 直說法의 形態素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는가”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어체」에 屬하는 語尾이다.

3.2.5 直說疑問法語尾 “-네까”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言述해진다.

(124) 나도 같이 갑네까?

(125) 야의도 일 잘 훑네까?

(126) 애진 아무거나 잘 먹음네까?

이들 語尾에서 {-네-}가 直說法語尾임은 2.2.3에서 規명한 바이고, 여기 {-까}가 疑問法語尾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3.2.6 直說疑問法語尾 “-니다”

方言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127) 나도 같이 갑니까?

(128) 철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129) 철수 공부 잘 훑니까?

이들 發話에서는 “-니다” 語尾가 나타나 있다. 이런 語尾는 近者 年少層의 言語社會에서 들을 수 있는 言述들이다. 아마 표준어 習得에서 온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여기서 {-니-}가 直說法의 形態素이다 함은 이미 알려진 바다.¹⁹⁾ 3.2.5의 “-네다”와 本項의 “-니다”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호서체」(尊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이상에서 方言의 直說法과 疑問法에 대하여 극히 간략하게 살펴 왔다. 그들 語尾를 여기 한 데 모아 一括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9) 高永根 Ibid., 1965, p. 17

그리고 Ⅱ章에서는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들의 形態素들을 各各 한테 묶어 보였으나 그들 大部分의 形態들이 이 疑問法에서도 反復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本 Ⅲ章에서는 그들 形態들을 疑問法의 語尾와 一括하여 여기 圖示하는 것으로써 그치려 한다.

疑 問 法 :

尊卑法 品 詞 叙 法	하 라 体		하 여 体		흥 서 体	
	動	形	動	形	動	形
	—느냐	—느냐	—는가	—는가	—비네까	—비네까
直 說 法	—느니	—느니			—비니까	—비니까
	—나	—나				

3.3 回想法과 疑問法語尾

3.3.1 回想疑問法語尾 “—더냐”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を 흔히 들을 수 있다.

(130) 그 사람 밥 먹더냐?

(131) 철순 학교에 가더냐?

(132) 계난 그거 나 하더냐?

이들 發話에 있어서 {—더—}가 回想法의 形態素이다 함은 앞의 2.3.1에서 밝힌 바이다. 그런데 이 方言에서는 이러한 回想法의 形態素 {—더—}가 아주 빈번히 言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더—} 보다는 다음의 “—아/어—”가 훨씬 더 빈번히 言述되어진다.

3.3.2 回想疑問法語尾 “—더니”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133) 가의 뭐 하더니?

(134) 철순 뭐 먹더니?

(135) 그 사람 어디로 가더니?

이들 發話에서 나타난 “—더니”의 {—더—}는 3.3.1에서 말한 {—더—}와 ‘同一한 形態素이고, 疑問法語尾 “—니”에 대해서는 3.2.2에서 밝힌 바이다.

3.3.3 回想疑問法語尾 “—아냐/어나”

다음과 같은 發話는 方言의 原語民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136) 철수도 그거 보아냐?

(137) 가의 집의 오라냐?

(138) 그 사름 밥 먹어냐?

이들에서 “-어냐”의 {-어-}가 回想法의 形態素임은 앞의 2.3.4에서 밝힌 바이다.

3.3.4 回想疑問法語尾 “-아/어”와 “-안가/언가”

다음과 같은 發話도 方言에서 아주 빈번히 言述하여진다.

(139) 철수도 학교에서 오라?

(140) 그 사름 밥 하영 먹어?

(141) 가의도 그거 보안가?

(142) 나도 그거 하영 마전가?

이들 言述에서의 “-아/어-”는 回想法의 機能과 疑問法의 機能을 兼해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때 上昇(rising) 調素도 疑問의 機能을 하는 것이다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안가-언가”의 {-안/언-}이 回想法의 形態素이다 함도 앞의 2.3.5에서 밝힌 바이다.

3.3.5 回想疑問法語尾 “-네데가”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發話하여진다.

(143) 가의 학교에 나갑네가?

(144) 철순 공부 흠네가?

(145) 계난 나 하영 마집네가?

들과 같이 方言의 原語民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發話해지는데 여기의 {-네-}가 回想法의 形態素임은 앞의 2.3.5에서 밝힌 바이다

3.3.6 回想疑問法語尾 “-디가”

方言에서 다음과 같은 發話도 들을 수 있다.

(146) 가의 어디 갑디가?

(147) 철순 공부 잘 흠디가?

(148) 그 사름 오는 거 봅디가?

이들 發話에 있어서 “-디가”의 {-디-}는 回想法의 形態素이다. 그것은 直說法의 形態素 {-니-}와 對比시켜 볼 때 더욱 이 {-디-}를 回想法의 形態素로 보게 된다.

이상에서 方言의 回想法과 疑問法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살펴 왔다. 여기 그들 語尾를 한 데 모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疑 問 法 :

尊卑法→ 品詞 叙法↓	하 라 体		하 여 体		하 시 体	
	動	形	動	形	動	形
	-더냐	-더냐	-아/어	-아/어	-디매가	-디매가
回想法	-더니	-더니	-안가/언가	-안가/언가	-디디가	-디디가
	-아냐/어나	-아냐/어나				

3.4 推測法과 疑問法語尾

3.4.1 推測疑問法語尾 “-크냐”

다음과 같은 發話가 方言에서는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149) 오늘밤 비 오크냐?

(150) 가의 이거 먹크냐?

(151) 이거 느 헤지크냐?

이들 發話에서 (149)와 (150)은 相對者(聽者)의 推測을 묻는 것이고, (151)은 相對者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고 즉 그 可能을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推測이나 可能을 表示하는 形態素는 {-크-}이다 함은 2.4.2에서 밝힌 바이다.

3.4.2 推測疑問法語尾 “-크까”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흔히 들을 수 있다.

(152) 오늘밤 비 오크까?

(153) 이거 느 헤지크까?

이들에서 (152)의 “-크까”는 (149)의 “-크냐”와 그 機能이 같고, 또 (153)의 “-크까”는 (151)의 “-크냐”와 그 機能이 같다. 다만 {-냐}와 {-까} 사이에 話者의 相對者에 對한 個人的 瞬間的인 心的態도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3.4.3 推測疑問法語尾“-카”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흔히 들을 수 있다.

(154) 오늘밤 비 오카?

(155) 가의 널오카?

(156) 철수 이글 알카?

이들 發話에서 (154)와 (155)는 相對者의 推測을 묻는 것이고, (156)은 相對者에게 철수가

이 글을 알 수 있을까고 그 可能을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단순히 相對者의 枕수 能力에 대한 推測을 묻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서 {-쿠-}이 可能 推測을 表示하는 形態素이고, {-아}가 疑問法語尾이다. 또는 이런 發話가 話者의 疑訝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3.4.1의 “-크냐”와 3.4.2의 “-크까”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라체」(下待)에 屬하는 語尾이고, 여기의 “-카”는 「하여체」(平待)에 屬하는 語尾이다.

3.4.4 推測疑問法語尾 “-쿠가”

다음과 같은 發話는 方言의 原語民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言述하여 진다.

- (157) 오늘 밤 비 오쿠가?
 (158) 이거 오늘 다 하여지쿠가?
 (159) 널 어디 가쿠가?

이들 發話에서 (157)은 推測, (158)은 可能, (159)는 相對者의 意圖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쿠가”의 {-우-}가 對者尊待 形態素이다 함은 이미 밝힌 바이다.²⁰⁾

3.4.5 推測疑問法語尾 “-르다”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아주 빈번히 주고 받아진다.

- (160) 느 널 어디 갈다?
 (161) 느 오늘밤 우리 집의 올다?
 (162) 느 널 뭐 흘다?

이들 (160), (161), (162)들은 모두 相對者의 意圖를 묻는 發話들이다. 相對者의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素는 {-르-}이고, {-다}는 疑問法語尾이다. 그런데 發話(160)과 (162)에서는 疑問辭를 前置시키고 있다. 이 (160), (162)와 (161)을 놓고 볼 때 “-르다” 語尾는 疑問辭가 앞에 配列되거나 안되거나 方言에서의 發話는 成立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르다”가 앞에 疑問辭를 配列시킨 때의 意味와 다음 項에서 말할 “-르디”가 앞에 疑問辭를 配列시킨 때의 意味와는 그 內容에 差異가 있다. 語尾 “-르다”에서는 相對者가 무엇을 할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게 되고, “-르디” 語尾에서는 相對者가 무엇을 한다는 事實은 分명한데 그것이 무엇이나를 묻게 된다.

3.4.6 推測疑問法語尾 “-르디”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를 아주 빈번히 言衆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다.

- (163) 는 널 뭐 흘디?

20) 玄平孝 Ibid., 1973, pp. 9~15

(164) 는 널 어디 갈디?

(165) 는 서월서 언제 올디?

이들 發話는 모두 相對者의 意圖를 묻는 것이다. 그 意圖를 表示하는 形態素는 {-리-}이다 그런데 이 {-디}疑問法語尾는 반드시 疑問辭를 앞에 配列시킨다. 그 疑問辭가 앞에 配列되므로 그 疑問法으로써의 抑揚에도 判定疑問의 경우와는 差異가 있게 된다.²¹⁾

이상에서 論하여 온 方言의 推測法과 疑問法 語尾들을 一括하여 여기 圖示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疑 問 法 :

尊卑法 品詞 品叙·法	라 体		여 体		흥 서 体	
	動	形	動	形	動	形
	-크냐	-크냐	-카	-카	-쿠가	-쿠가
推測法	-크까	-크까				
	-르다					
	-르디					

IV 命令法 · 請誘法

4. 1 序 言

方言에서의 命令法과 請誘法은 그 語尾構成체가 매우 간단하다. 方言의 平叙法, 疑問法등에 있어서는 動作相 · 尊待法 · 直說法 · 回想法 · 推測法 등 여러가지의 先語末語尾를 그 語幹과 語尾 사이에 介在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命令法과 請誘法에 있어서는 「흥서体」形을 除外하고는 그 語尾가 언제나 語幹에 直接 連結되게 된다. 平叙法, 疑問法 등에서와 같이 여러가지의 先語末語尾가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介在되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方言에서는 命令法과 請誘法의 語尾構成법이 같다고 할 수 있고 해서 여기서 함께 考察하여 가기로 한다.

21) 崔鉉培 Ibid., p. 102

朴昌海 “국어의 設침음운에 관한 연구”, 「東方學志六집」, 延大東方學研究所, 1963, p. 35

H. 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 Y. 1955, p. 44

市河三喜 「英語學辭典」, 東京, 研究社, 1940, pp. 519~21

4. 2 命令法語尾

4. 2. 1 命令法語尾“—라”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 받아진다.

(166) 느 혼자 공부하라.

(167) 느 혼자 밥 먹으라.

(168) 는 재계 집의 가라.

이들 發話들은 모두 相對者에 대한 命令이다. 여기의 語末語尾 {—라}가 命令法의 形態素인 것이다.

4. 2. 2 命令法語尾 “—아/어, —게, —십”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 받아진다.

(169) 혼자 공부 하여.

(170) 재계 일 마차.

(171) 혼자 밥 먹게.

(172) 재계 일 마치게.

(173) 나 걱정 말앙 혼자 먹십.

(174) 어둡기 전의 혼자 가십.

이들 發話는 모두 命令法이고, 그 命令法의 語尾는 {—아/어}, {—게}, {—십}이다. 이 {—십}은 中年 이상의 婦女들이 주로 쓰는 語尾이다. 그리고 이들 語尾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여體」에 屬하는 語尾이다.

4. 2. 3 命令法語尾 “—디서”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히 言述해진다.

(175) 어둡기 전의 혼자 감서.

(176) 혼자 밥 먹음서.

(177) 일덜 재계 흥서.

이들 發話는 모두 年下者가 年上者에게,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또는 이 發話를 하는 話者가 相對者를 尊待하려고 할 때 그 相對者에게 向하여 言述하여진 것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두 尊待 命令法의 言述들이다. 이들에게서 尊待의 形態素는 {—디—}이고, 語末語尾의 {—디}는, 命令法의 形態素라 할 것이다.

4. 3 請誘法語尾

4. 3. 1 請誘法語尾 “-자, -게, -취/주”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흔히 들을 수 있다.

- (178) 우리 혼디 가자.
- (179) 우리 곶이 항게.
- (180) 글라, 널 산의 가게.
- (181) 우리 일덜 항취.
- (182) 우리 곶이 놀주.

이들 發話는 모두 話者가 相對者에게 어떤 行動을 함께 하기를 請誘하는 言述들이다. 그런데 (178)~(180)에서의 {-자}, {-게}는 方言의 尊卑法體系에서 「하라체」(下待)에 屬하고, (181), (182)에서의 {-취}, {-주}는 「하여체」(平待)에 屬하는 請誘法語尾들이다.

4. 3. 2 請誘法語尾 “-디취, -디주”

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도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다.

- (183) 밥 돛은 때 먹읍주.
- (184) 다덜 밖으로 나갑취.
- (185) 혼디덜 재게 홉취.

이들 發話도 모두 話者가 相對者에게 어떤 行動을 함께 하기를 請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發話가 모두 尊待 請誘法으로 言述되어 있다. 그 尊待 請誘法에서 尊待의 形態素는 위에 서 누누이 規明한 바와 같이 {-디-}이고, 請誘法의 語尾는 {-취}, {-주}이다.

이상 論하여 온 바 命令法과 請誘法의 語尾들을 一括하여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尊卑法 叙法	하 라 체	하 여 체	홍 서 체
命 令 法	-라	-아/어	-디서
		-게	
		-십	
請 誘 法	-자	-취	-디취
	-게	-주	-디주

V 結 論

以上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를 方言 言衆들의 發話를 통해서 考察하였다.

方言의 發話에서 言述되어 나타나는 語尾를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로 나누고 그 先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에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들을 分析하여 내었고 語末語尾로 表示되는 叙法에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 등을 考察하여 왔다.

이제 위에서 考察하여 온 바 各 叙法에 있어서 方言의 特徵의인 形態들과 特異한 點을 들고 綜合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5.1 直說平叙法과 直說疑問法語尾로서

“-느니”, “-느냐”의 {-느}를 基本形態로 삼았는데 方言 語尾로서 特徵의인 直說平叙法 語尾는 “-나”이다. 이 “-나”는 直說法의 形態素 {-느-}과 平叙法語尾 {-아}로 分析되지만 이것은 濟州島 方言 特有의 直說平叙法 語尾이다. 또 “-네다”의 {-네-}도 오늘날 濟州島 方言의 特徵을 들어 내는 直說法의 形態素이고, “-네”도 또한 方言 特有의 直說平叙法 語尾이다. 이 “-네”는 直說法의 {-니-}와 平叙法語尾 {-에}로 분석된다.

5.2 回想平叙法과 回想疑問法語尾로서는

“-더라”, “-더냐”의 {-더-}를 基本形態로 삼았는데, 方言에서 이 回想法의 語尾는 그 變異形態들이 매우 多樣하다.

“-더냐”의 {-더-}와 “-데”는 他地域에서도 널리 쓰이는 形態지만 “-네다”의 {-네-} “-아라/어라”의 “-아/어”, “-안게/언게”의 “-안/언-”들은 濟州島 方言 特有의 回想法 形態素라 하겠다.

5.3 推測平叙法과 推測疑問法語尾로서는

“-키여”, “-크라”, “-크냐”, “-쿠다”등의 {-크-}을 基本形態로 삼았는데, 이 “-키여” “-크라”, “-쿠다”, “-쿠가”, “-려”들은 모두가 方言 特有의 推測法 形態素들이다.

5.4 方言의 尊待法 表示의 形態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元來 客体尊待의 形態素였던 “-습-”이 轉變해서 對者尊待의 形態素로 된 “-디-”이고, 다른 하나는 亦是 對者尊待의 形態素인 {-우-}인데, 이 {-우-}는 方言 本來의 對者尊待의 形態素이다.

5.5 方言의 命令法語尾는 命令法을 表示하는 語末語尾가 直接 語幹에 連結되어서 構成된다.

以上 극히 간략하게 方言 活用語尾의 特徵적인 語尾 形態들만을 들어 보았다. 方言의 活用語尾들을 國語史의인 面에서 볼 때에는 그 語尾 形態들 사이에 年代的으로 史的 層位가 다름을 알 수 있다. 7, 8세기의 語尾 形態가 빈번히 쓰이는가 하면 18, 9세기의 형태도 混雜하게 같이 쓰여지고 있는 狀態이다. 이렇게 史的 混態를 이루고 있는 점이 또한 方言의 한가지 特徵이기도 하다.

— Summary —

A Study of Conjugational Ending in Cheju-Do Dialect

by

Hyun Pyung-hyo · Kim Hong-shik · Kang Keun-bo

In this paper, the conjugational endings of the Cheju-Do Dialect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actual utterances of native speakers. The conjugational endings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terminal endings and pre-terminal endings. An analytical processing has disclosed that pre-terminal endings are used to show the indicative, retrospective, and presumptive moods, while terminal endings to show the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optative moods.

the conjugation forms characteristic of the Cheju-Do Dialect and their special features are as follows :

1. Indicative mood. The basic form of the indicative mood is {-n̄-} as seen in 'n̄ni' and 'n̄nya' however the Cheju-Do Dialect has '-na' to show the indicative mood and it is most peculiar to and characteristic of the dialect. This '-na' can be analyzed into {-n̄-}, an indicative morpheme, and {-a}, a conjugational ending of the declarative mood. The {-ne-} of '-bnda' is another morpheme for the indicative mood characteristic of the Cheju-Do Dialect and '-nye' is another indicative ending which is analyzed into {-ni-} and {-e}

2. Retrospective mood. The basic ending form in the retrospective mood is {-d̄-} as shown in 'd̄ra' and 'd̄nya'. The Cheju-Do Dialect, however, has many variants, among which {-d̄-} and {-de} are ones found also in other regional dialects but peculiar to Cheju-Do are {-de-} of '-bnda', {-a/ə-} of '-ara/əra', {-an/ən} of '-ange/ange'

3. Presumptive mood. The basic form of the presumptive mood is {-k'-} in 'k'iyə' 'k'ira' 'k'inya' 'k'uda' and peculiar to the dialect are 'k'iyə' 'k'ira' 'k'uda' 'k'uga' 'ryə', also 'k'a' 'lta' 'lti' serve as presumptive endings in the Cheju-Do Dialect.

4. Honorific System. There are two morphemes to be used in the honorific system

of the Cheju-Do Dialect. One is {-b-} which is traceable to 'sob' and the other {-u-}, the indigenous form to Cheju-Do.

5. Imperative mood. The imperative mood of the Cheju-Do Dialect is composed by connecting imperative terminal endings directly to the root forms. '-ra' and '-bsə' are some of these endings.

6. Optative mood. The optative mood is composed by connecting optative endings to the root forms. These endings are seen in '-ja' and '-bjui'.

Viewed from a diachronic standpoint, these conjugational endings range widely in their developments. The ending form of the 7th or 8th century are found in the contemporary dialect along with the ending forms of the 18th or 19th century. This kind of confusion and mixture is another feature of the Cheju-Do Dialect.